광주 직장인 10명중 7명 "기회 오면 이직하겠다"

비정규직 확대 등 영향
"현 직장서 정년" 13%
잡사랑방, 321명 설문

광주지역 직장인 10명 가운데 7명은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이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고용 확대와 조기 은퇴 등 체감정년이 낮아지면서 현재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광주 취업사이트 잡사랑방(jobsrb.co.kr)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직장인 321명을 대상으로 이직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7.0%가 '좋은 기회가 온다면 이직할 생각'이라고 답해 절반 이상이 언제든 이직을 꿈꾸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금 당장 이직하고 싶다'고 응답한 비중은 19.6%인 반면, '지금 직장에서 정년 맞을 때까지 일할 생각'이라는 답변은 13.4%에 불과했다.

근무연차별로 보면 직장경력이 낮을수록 이직 의향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3년 미만 차의 직장인들이 30.2%로 이직을 가장 많이 고려하고 있었고, 3~5년 차가 20.9%, 5~7년 차와 10년 이상 차는 각각 16.5%, 7~10년 차는 15.8%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48.9%로 상대적으로 높은 이직 의지를 보였으며 40대 22.7%, 20대 18.7%, 50대 이상 9.7% 순이었다.

'언제 가장 이직하고 싶나'라는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25.5%가 '직장에 비전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꼽았다. 이어 '연봉이 동결되거나 급여가 짜다고 생각될 때(24.8%)', '상사·직장동료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19.8%)'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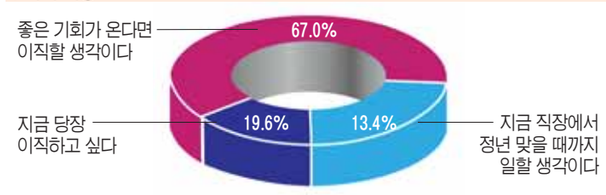
이직 시 옮기고 싶은 직장으로는 '연봉이 높은 직장'이 20.1%로 가장 높았고, '직원 복리후생이 좋은 직장(19.1%)', '미래 비전이 있는 직장(17.3%)',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장(12.6%)', '주 5일 근무하는 직장(11.9%)', '가족적인 분위기의 직장(10.1%)', '출퇴근 시간이 명확한 직장(9.0%) 등의 순이었다.

박영주 잡사랑방 팀장은 "잦은 이직은 새로운 직장에 들어갈 때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꼼꼼한 사전조사를 거쳐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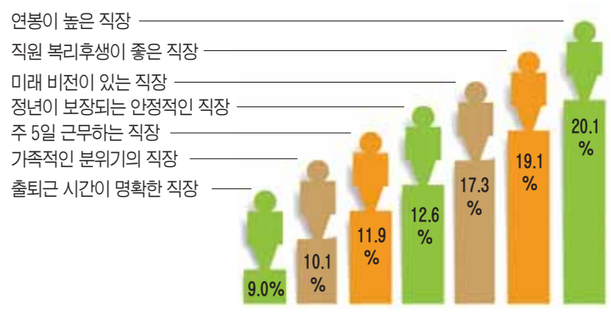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지역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

◆이직 의향



◆이직하고 싶은 직장의 조건



15일 개장한 금호터미널 유·스퀘어 주차장 전경. 〈금호터미널 제공〉

금호터미널, 유스퀘어에 461면 주차장 완공

지하 1·지상 4층 규모
주변 주차전쟁 해소 전망

금호터미널이 15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 461면의 대형 주차장을 완공, 주말이면 반복됐던 인근 주차전쟁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금호터미널은 이날 "광주 서구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유·스퀘어)에 시민 편의를 위한 대형 주차장을 완공했으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밝혔다.

새로 개장한 이 주차장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모두 461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다.

지하에 106대, 1층 78대, 2층 86대, 3층 86대, 옥상층 105대 등이다. 지난해 11월 증축 공사에 들어가 5개월 만에 완공했으며 지상층 면적만 7771㎡로, 투입된 예산은 51억8800만원에 이른다.

주차장은 노숙 차량이나 무단 주차 등을 막기 위해 유료제로 운영되며 기본 30분에 800원이다.

금호터미널 관계자는 "지역민들의 문화쉼터인 유·스퀘어 주변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버스나 각종 문화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차장을 대거 증축하게 됐다"며 "터미널 '교통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덜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신용카드 1포인트만 적립돼도 사용 가능

금감원, 6월부터

오는 6월부터 카드에 1포인트만 적립돼 있어도 즉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1포인트=1원 사용'이라는 금융당국의 지침을 따르기로 함에 따라 나머지 카드사들도 일제히 동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의 포인트 사용 최저한도 철폐 등을 카드사에 집중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오는 6월 1일부터 '마이신한포인트' 세부 운영 기준을 이런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과거 5000 포인트 이상 적립된 경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을 6월부터는 1포인트 이상 적립부터 1포인트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뀐 점이다. 먼저 적립된 포인트부터 차례로 차감된다.

기존에 5000 포인트가 넘지 않으면 포인트가 있어도 쓸 수 없었던 것을 앞으로는 1포인트만 있어도 1원으로 계산돼 연회비 등을 내는 데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제조업 무료 홍보사업' 신청업체 접수

중기 지역본부, 30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광주시·전남도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 무료 홍보사업'의 신청업체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다.

무료 홍보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BUY-광주·전남 운동'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으며 지역제품 애용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광주·전남지역의 170개(광주·전남 각 85개 업체) 업체를 선정, 지역 일간지에 업체소개와 함께 제품을 홍보한다.

홍보방법은 우수 중소기업제품을 선정, 지역 일간지에 회사소개와 제품정보를 사진과 함께 게재하며 업체선정은 시·도 유망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신기술 및 품질인증 보유업체, 수출업체, 일자리창출 기여업체 등 중소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폭넓게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 홈페이지(www.kbiz.or.kr/branch/gj)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아 30일까지 신청서 및 생산제품 이미지 등을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문의(062-955-9559).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17일 삼성증권 호남포럼

삼성증권 광주지점(호남사업부장 김태현)이 주최하는 삼성증권 4월 호남포럼이 1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지점에서 열린다.

이번 호남포럼에서는 환율전문가인 정미영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장이 강사로 나와 최근 변화가 급격한 환율과 관련 전망과 대응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또 2부에서는 금융투자 전문가인 조완제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이 '법인 자산 운용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연한다. 삼성증권 고객이 아니라도 사전 신청하면 무료로 참석이 가능하다. 문의 062-380-1507.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동물 캐릭터 '컵케이크' 인기 15일 광주신세계 지하 1층 식품관에 신규 입점한 베이커리 매장에 테디베어, 피글렛 등 동물 캐릭터를 형상화한 '컵케이크'가 선봬, 인기를 끌고 있다. 컵케이크는 기존 케익보다 크기가 절반 이상 작지만 모양과 컬러가 훨씬 다양해 어린이나 여성 고객이 많이 찾는다. 〈광주신세계 제공〉

프라다·지방시·이브 생 로랑…
명품브랜드 가방·지갑 다 모였네

롯데백화점 광주점
16~20일 명품대전

광주지역에서 만나볼 수 없었던 명품 브랜드들이 총출동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올해 첫 해외명품대전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장소는 지하 1층 매장으로, 접하기 어려웠던 프라다, 펜디, 끌로에, 이브 생 로랑, 지방시, 페라가모 등 20여종 총 30억원대 물량의 가방·지갑류 위주 명품브랜드가 참가한다.

각 브랜드별로 20~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선보이고, 특히 유통과정에서 손상된 스크래치 상품은 50~70%까지 할인된다.

지상 1층 입점 브랜드인 에트로는 이에 맞춰 오는 18~20일 3일간 1년에 한 차례뿐인 이월상품 30~60% 할인행사를 한다. 가방과 지갑류 외에 20~40% 할인 가격에 선글라스, 시계 등의 명품도 함께 선보인다.

명품대전 기간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상품권 증정, 6개월 무이자 할부혜택 등 다양한 혜택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한 관계자는 "광주지역민들에게 미입점 명품 브랜드들을 소개하기 시작한 지 3년째"라며 "올해 처음 열리는 해외명품 대전에서 부담 없는 가격과 양질의 상품으로 고객들을 맞이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